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3년 5월 뉴스레터 vol. 65
한겨레두레협동조합



- | | |
|-----------|--------------------------|
| 채우고 비우고 | 블랙홀을 상상하며 |
| 공간채비 이야기 | 창업과 창작의 산실, 공간채비 |
| 장례후기 | 추모에 전념할 수 있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
| 숫자로 보는 채비 | 노인의 44%, 죽음 준비 하지 않고 있어! |
| 채비학교 |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
| 메멘토모리 |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존엄해진다 |

블랙홀을 상상하며



가끔, 사람들의 눈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궁금하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내가 아는 나일 뿐 다른 이가 보는 나는 아닌 것이다. 내 형제들은 나더러 아직 젊다, 피부가 좋다, 사십 중반대로 보인다고 위로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형제들 얼굴에서도 '노인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도 나처럼 노화를 인정하기 싫고, 내게 덕담함으로써 스스로 위안을 얻는 것이다.

인간은 성인이 된 후부터 계속 늙어간다. 이 말이 맞다면 지속적으로 노화의 과정을 겪다가 60을 넘어서면서 노인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다. 얼마 전 봄별 좋은 날 나는 우리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청량한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동네 꼬맹이들 셋이었다. 그 인사가 내게 하는 것인 줄 몰라(모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잠시 두리번거렸다. 우리 동네는 이웃끼리 인사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서 동네 어른들을 보면 인사를 한다.

이때 깨달았다. '아' 내가 할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늙어 보이는구나.' 아이들 눈이 가장 정직할 테니까. 나는 아직 노인이 될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노인이라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거북하다. 벗어 던질 수도 없는 옷. 물론 우리 사회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한다. 그런데 65세 전에는 노인이 아니었다가 65세 넘어서자마자 바로 노인이 되는 그런 인생은 없다. 생명 활동은 연속적이며 시간은 멈췄다 흐르지 않는다.

노화와 더불어 영 탐탁지 않은 현상은 내 얼굴에서 점점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점이다(하늘에 계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래도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드렸잖아요). 목소리도 가늘어지며 닮아간다. 애석하게도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는 그리 좋은 인사는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랬듯 우리도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좋지만은 않은 것이다. 나의 사후에 내 아이들도 그럴까? (제발 아니기를).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우리는 아버지의 늙은 모습만을 기억하겠구나. 젊은 날의 아버지는 나와 같았겠구나. 지나온 시간이 나를 여기로 데려다 놓았다. 과거의 시간이 소중했다면 앞으로 시간도 그럴 것이다. 젊은 날 나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을 갖고 있다. (우리는) 시간의 진짜 주인일 때만 살아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을까. 돌아보면 예기치 않은 사건에 떠밀려 허우적거리다 겨우 헤엄쳐 나온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아마 순간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다. 그 시간 속에 차마 털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기억도, 누군가(가족도 포함해서)에게는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도 많다. 아쉬움과 후회가 왜 없겠는가. 지금의 나라면 그때 더 잘했을 것도 같고. 하지만 흘러간 시간을 돌아오지 않고 내게는 얼마인지 모를 시간만이 남아 있다.

시간은 영겁과 같을 수도 있지만 찰나처럼 짧을 수도 있다. 하루살이에게 스물네 시간은 평생의 시간이고, 우주의 시간 속에 지구의 시간은 먼지와 같다. 하물며 인간의 시간이라. 중요한 것은 순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겪는가에 달려 있다. 모모의 말처럼 시간은 삶이고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까.

노인의 시간은 점점 죽음을 향해 진행한다. 그래서 젊은 날의 시간보다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더욱 성숙한 자세로 후회 없이, 사건의 지평선 위에서 고독하게, 그 의미를 충분히 겪고 싶다. 더는 없을 위대한 순간이니까. 나는 죽음의 순간 블랙홀을 상상할 것이다. 한 줄기 빛으로 빨려 들어갈 그 황홀한 순간을!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창업과 창작의 산실, 공간채비



-지난 4월은 다양한 기관에서 공간채비를 이용해 주었다. 4월 1일 행사는 채비추모장례로 진행했다. 이 날 진행될 추모식을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준비했다. 채비플래너인 내가 준비를 했지만 당일 진행을 할 수 없어서 전부터 잘 알고 있는 장례 예식 전문가와 전문장례지도사와 사무국이 현장을 담당했다. 추모식이 끝난 후 후기를 들어보니, 추모식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사적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것은 말할 수 없지만, 모두 많이 울고 많이 위로받았다고 한다. 슬픔은 담아두면 안 되고 쏟아 내야 하는데, 공간채비와 채비추모장례식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추모식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 채비추모장례의 핵심은 3가지이다. 채비플래너, 채비추모공간, 추모예식 콘텐츠다. 곧 채비플래너 양성과정을 시작한다. 서대문구에 소재한 한 유능한 사회적협동조합과 채비플래너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 마을 상포계를 조성할 꿈을 가져본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기획과 마을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있어 기대가 된다. 한겨레두레 조합원도 같이 꿈꾸고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 4월에 회의실을 한 달 임대한 환경 단체도 있었다. 젊은 활동가들이 회의실에서 일하면서 메인홀에서 쉬기도 하고, 날이 선선한 날에 테라스에서 점심 먹는 모습을 보면서 공간채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여유롭고 편안한 업무 공간을 제공 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보람되었다.

- 현재는 와인파티업을 진행하는 젊은 대표가 주말 저녁 공간 채비를 이용하고 있다. SNS 네트워크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인데 흥미롭다. 공간채비가 창업하려는 이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우리도 공간의 쓸모에 관해 많이 고민하지만, 채비공간 이용자들의 생각은 그보다 더 넓고 새롭다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공간채비가 새롭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위해 잘 사용되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간채비 매니저 | 전승욱 부장



추모에 전념할 수 있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지도사님의 정성스럽고 시의적절한 인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옆의 다른 장례식장들도 유명 상조(*다함, *리드 등)의 도움을 받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채비는 다른 유명 상조와는 달리 광고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조합원을 위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다른 모든 가족들도 채비의 이번 도움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수고를 대신해 주셔서 큰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해용 조합원

장례에 집중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장례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비용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시고 이해시켜주셔서 어머니께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 염할 때 불교식으로 손수 장식을 만들어서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당 법사님도 그렇게 잘 하는건 처음 봤다고 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선산에 올라가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약소하나마 감사표시를 하려고 했지만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감사와 칭찬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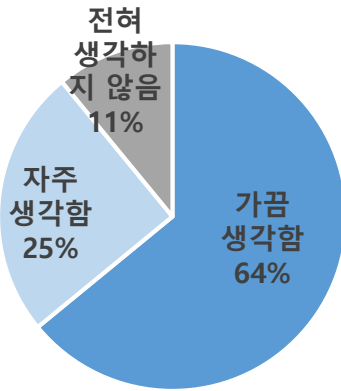
김동희 조합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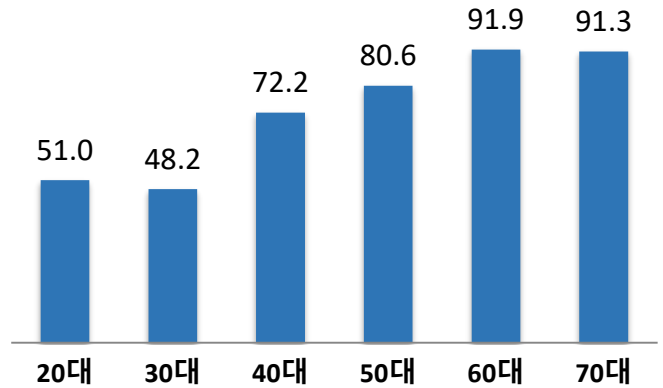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60대 이상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n=526)



연령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가끔 생각+자주 생각’의 합계, %, n=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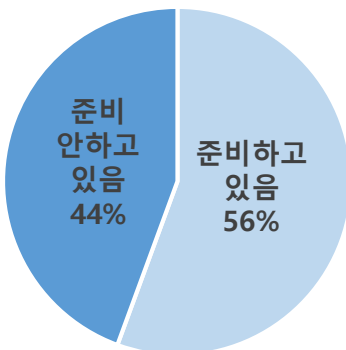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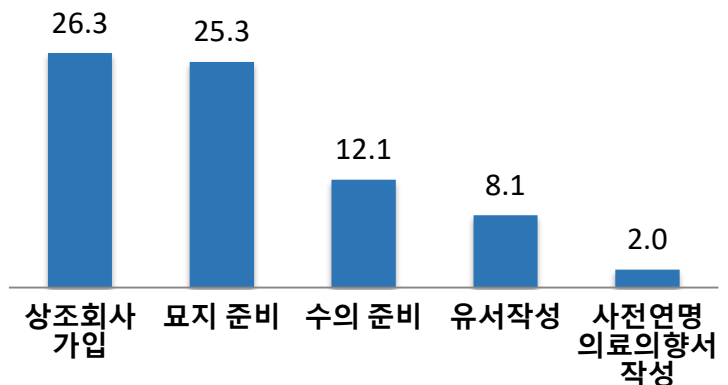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준비 여부

노인의 44%, 죽음 준비 하지 않고 있어!

죽음에 대비한 준비 여부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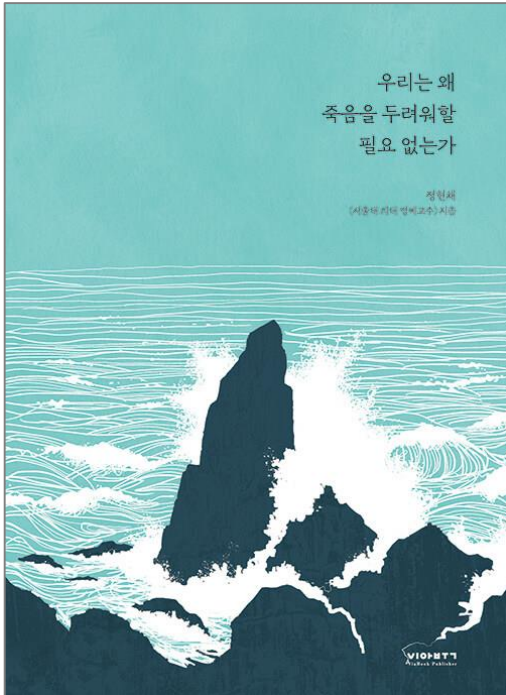


죽음에 대한 준비사항
(본인 죽음 준비하고 있는 자, %)



**자료 출처: 서울시. 본인의 죽음 준비 실태 조사. 2019.09. 만 20~79세 서울시민 남녀 526명.

죽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존엄해진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가

정현채 | 비아북

정현채 교수가 책의 원고를 마무리하던 시점인 2018년 초,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다. 두 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며 동시에 이미 탈고한 원고를, 죽음에 한 발짝 다가선 암 환자의 시각으로 다시 되고하며 죽음에 대해 더욱 깊이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연구실 비품이나 자료를 학교의 의학역사문화원에 기증하고 있으며, 매년 다섯 번 헌혈을 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강의노트를 복사해 준다. 장기기증서약서와 유언장, 자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기도삽관이나 연명의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고, 자신의 장례식에 쓸 음악을 USB에 담아 두었으며, 수의 대신 무명옷을 입히고 화장하여 바다에 뿌려 달라는 사전장례의향서도 만들어놓았다.

정 교수는 자신만의 죽음관을 가지라고 권유한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다 쓸쓸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삶을 잘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자의 오랜 연구와 경험적 추론으로부터 출발한다. 1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과 사망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비한 하임리히 요법이나 심폐소생술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죽음의 여러 모습을 다룬다. 1~3장에서의 기본적인 문제틀을 바탕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풀어나간다. 4~6장에서는 삶의 종말체험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관한 수많은 사례 연구와 다양한 측면의 고찰을 다루고 있고, 7장에서는 기존의 윤회론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생을 (보상, 배움의 개념으로 확장된 의미로서) 카르마에 관한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8장과 9장에서는 앞서의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변화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특히 저자는 ‘100세 장수’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무분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늙어감’에 대한 예찬과 죽음에 관한 올바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11장을 통해, 자살에 대해서만큼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 12장은 지난 11년간 죽음학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정현채 교수 본인의 죽음 준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채비플랜’ 수강생 모집

채비장례는 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고인을 기억하고 애도하며 치르는 장례식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원하는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채비플랜’은 이를 위한 조합원 대상 프리미엄 강좌이며 채비장례의 실질적인 내용을 준비합니다.

빠르고 편리해진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과 이별도 간편하게 정리되고 치러집니다. 이별은 고인을 잘 보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생각해볼 순간이기도 합니다. 채비플랜을 통해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좌가 필요한 조합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 소개

- 교육내용: 채비 장례 준비(추모식포함), 채비장례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등
- 대상: 고인과 가족 중심의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하려는 분, 채비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등
- 일정: 2023년 6월 8일(목)/ 6월 15일(목) 오후 4시~ 5시 30분
- 장소: 공간채비 메인 홀(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헤센스마트상가 201호)
- 교육 정원: 10명 내외 (선착순 마감)
- 제공: 채비노트
- 신청 링크: <https://forms.gle/2uFK9joqq8yEk1ne6>
- 문의: 02)722-9517/ 720-9517(오전10시~ 오후5시)

■ 프로그램

강좌	제목	강의 내용	준비물	강의 날짜
1강	채비 추모장례란	- 채비추모장례 개요와 준비	채비노트 (제공)	6/8(목) 16:00~17:30
	추모식 준비1	- 고인 사진 영상 만들기 - 영정 사진 선택, 유품 전시 물품 작성 등		
2강	추모식 준비2	- 추모식의 의미와 의의 - 추도사 쓰기, 조문객 수와 부고 문자 작성, 메모리얼포스트 작성하기 등	채비노트, 사진, 유품, 부고 문자 계획	6/15(목) 16:00~17:30
	가상 추모식	- 유품 전시 해보기와 가상 추도식 진행	추모식 준비 (강사 공지)	

2023년 4월

황영순 조합원 시부상
정윤숙 조합원 시모상
박은덕 조합원 부친상
김학로 조합원 모친상
이은아 조합원 조모상

김민정 조합원 시모상
이양자 조합원 부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혜순 조합원 부친상
장유경 조합원 부친상

강경희 조합원 배우자상
김준 조합원 모친상
황도연 조합원 모친상
최정희 조합원 시모상

2023년 3월

여태원 조합원 부친상
이진형 조합원 빙부상
성보란 조합원 모친상
최대식 조합원 부친상
김경환 조합원 지인상
이은주 조합원 부친상

정대근 조합원 본인상
권정은 조합원 부친상
신혜리 조합원 모친상
권위경 조합원 시부상
이희재 조합원 형제상

정현기 조합원 부친상
박기홍 조합원 빙모상
전계동 조합원 조모상
윤재경 조합원 배우자상
정귀례 조합원 모친상

2023년 2월

신윤동욱 조합원 모친상
유강문 조합원 모친상
하재찬 조합원 제수상

차혜숙 조합원 지인상
하태웅 조합원 부친상
이영삼 조합원 형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이양훈 조합원 이모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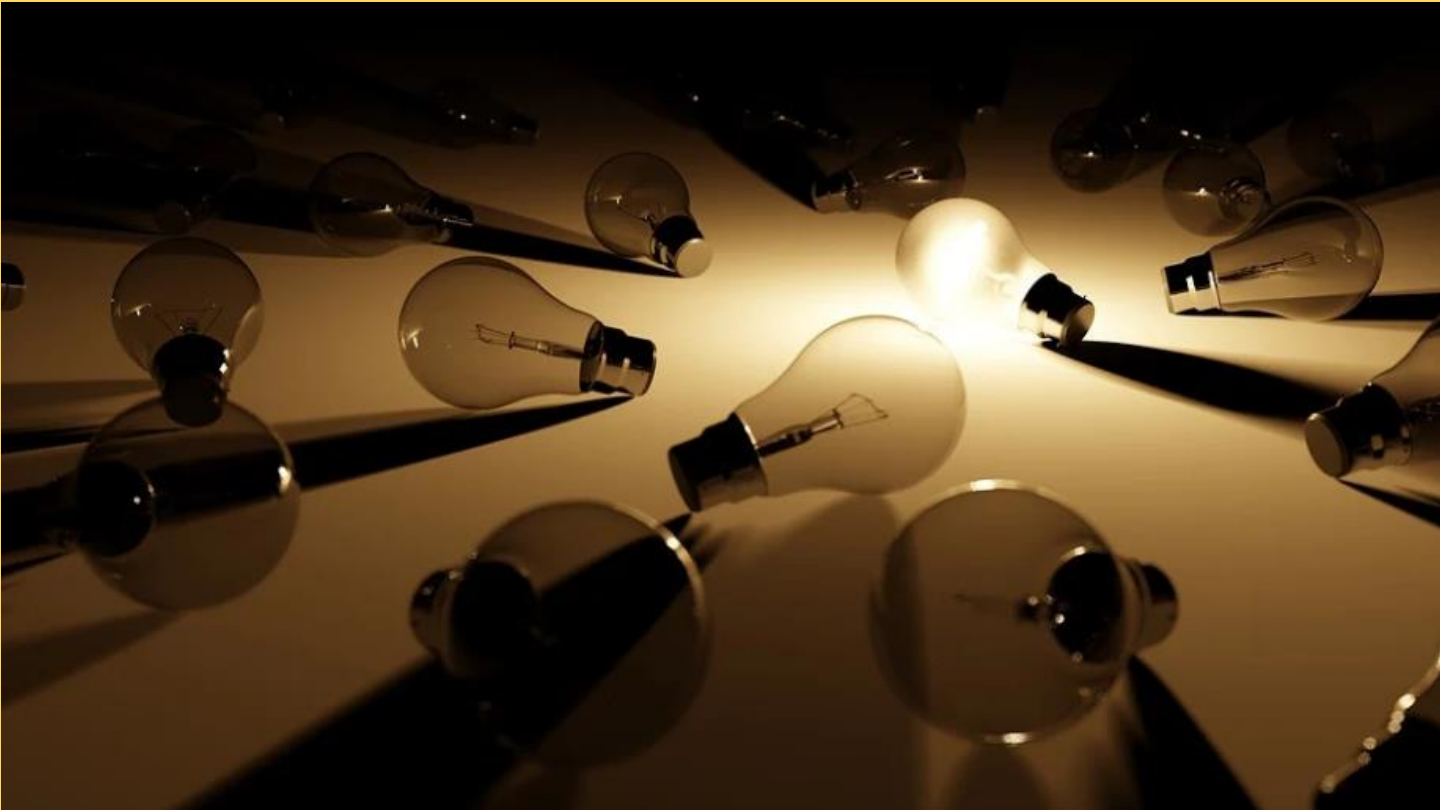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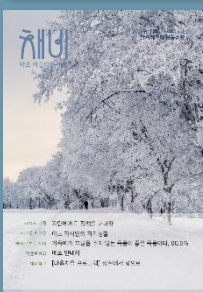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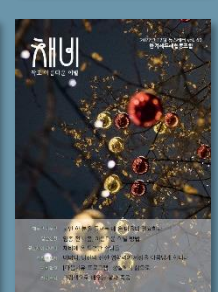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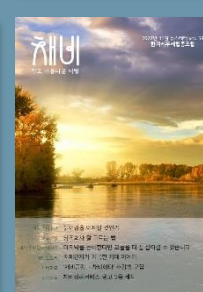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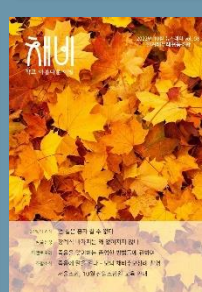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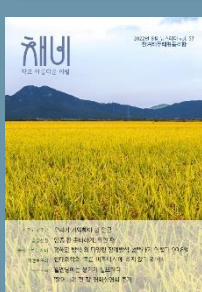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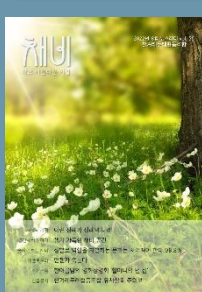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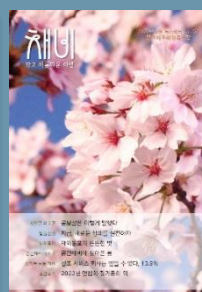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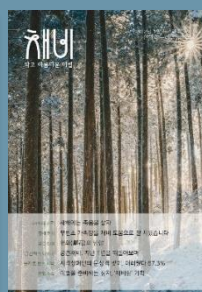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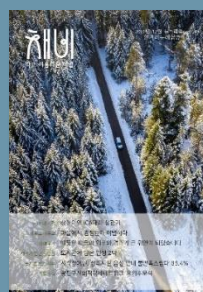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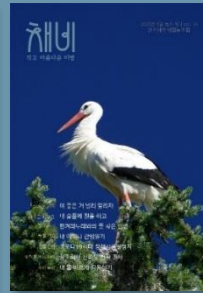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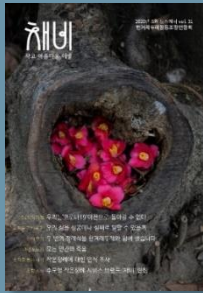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